

보도자료

2011년 6월 3일(금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김창근 과장(☎3400-2301)
전파보호과 김봉환 사무관(☎3400-2320) kimbh@kcc.go.kr

중앙전파관리소, 불법 GPS 혼신장비 특별단속 실시

-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(소장 박윤현)는 최근 인터넷이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법 위성위치확인시스템(GPS) 혼신장비(재머·Jammer) 등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6월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단속은 GPS 혼신장비가 항법장치는 물론 이동통신망이나 금융거래 등에도 장애를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,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1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요원 100여명을 동원, 전자상가 등 전국 대형 유통상가를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모든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.
-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런 불법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,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장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 끝.